

부산대학교 LINC육성사업 : 상생을 위해 대학과 기업의 신나는 만남을 시작하다

안중환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학과 기업의 신나는 만남’이다. ‘산학협력’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창하던 시기를 지나, 인식 제고의 단계를 거치

고, 이제는 그냥 만남도 아닌 ‘신나는 만남’을 지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신나는 만남! 공간, 시간, 형식 등의 물리적 영역을 초월해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적 영역으로의 진입이다. 이전까지가 앓고 견고 달렸다면, 이제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지에 비유할 만하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육상을 달리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양이나 질의 일방적 성장이 아닌, 전방위적 성장이 필요하다. 날카로운 민감성과 품

넓은 포용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산학협력의 지원범위 확대, 산학협력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산학협력에서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 특성화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노력이 모여 ‘산학협력의 신나는 만남’을 위한 첫걸음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부산대학교 LINC육성사업단은 ‘지역산업과 동반성장(산학협력 기반의 연구거점대학)’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장 친화 기술혁신형 고급인력 양성,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부산대학교의 공과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생활환경대학,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6개, 단과대학의 27개 학과(부), 28개 대학원 전공, 교수 304명이 참여한다. 또,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부산, 울산, 경남 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 융합기계 및 선박 부품소재, 고효율 그린에너지를 집중 육성(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부산대학교 LINC육성사업단의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구축, 기술혁신형 핵심 연구인력 양성, 통합 기업지원 및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의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다.



먼저,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구축’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허브(산학협력단), 대학 현장실습 총괄기구(현장실습지원센터), 기술창업 HUB(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혁신형 핵심 연구인력 양성’은 현장맞춤형 교과과정 개편, AtoZ 학생창업 지원, 맞춤형 Total Care 취업지원, Two-Track 기술혁신형 교육을 통해, 그리고 ‘통합기업지원 및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은 대학 중심 All-Set 기업지원 시스템, 산학협력 One-Stop 플랫폼 정보지도, 3-Online 공용장비 지원시스템, 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산학협력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 실무팀으로는 교육지원부, 산학협력, 취·창업지원이 구성되었다.

교육지원부는 IOE(Industry Oriented Education), IBR(Industry Based Research) 등 기업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등을 통하여 현장친화적인 인재

양성에 중요 역할을 한다. 그리고 LINC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현장 맞춤형 기술강좌, 기업회계 및 경영특강, 그리고 특허분석 및 맵 작성교육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산·학·연 Expo 참가지원, 산업체 재직자교육,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산학연계 교육과정운영 등도 담당한다.

교육지원부는 이러한 현장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 친화적 인재로 거듭나서 취업에도 큰 도움을 받아 원하는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더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부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과 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혁신 촉진, 기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양성(대학과 기업 연계)을 목표로 '새로운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교류회 및 포럼, 산업체 재직자 교육, 공용장비운영센터, 특허맵 및 출원·등록 지원 등의 '산학협력 기업 지원'과 가족회사 제도 운영, 산학협력체 운영, 동남권 선도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등의 '산학

협력 네트워크'가 있다. 이상의 산학협력 기업 지원, 산학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All-Set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업 코디네이터 기능)을 완성하게 된다.

취·창업지원부는 창업지원사업과 취업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창업지원사업'은 대학 내에 창업교육 총괄기관으로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였고, 창업교과목 개발 및 운영,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 지원에서 관리까지 성공적인 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크게 '창업교육'과 학생창업 토탈지원을 위한 'AtoZ 학생창업 지원사업'을 나뉘어 부산대학교 내 창업교육센터에서 총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취업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의 학년별,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취업지원교육으로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취업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실제 취업을 위한 채용설명회/박람회 개최 등 학생들의 취업역량제고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셋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 때 산학협력 파워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지난 2월 25일 부산대학교 LINC육성사업단의 1차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2013 PNU-LINC 산학협력 성과발표회'가 있었다. 성과발표회장에는 PNU-LINC사업관, 기술혁신관, PNU산학협력관, 동남권기업홍보관 등의 전시부스가 대규모로 마련되어 내외 귀빈 및 기업, 산학협력 관계자와 학생들의 발길이 성황을 이루었다. 각각 소규모 회의실에서는 캡스톤디자인 설명회, 산학공동과제설명회, 가족회사DB설명회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열띤 토론과 검토의 장이 이어졌다. 초청강연에서는 강연장이 초만원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산학공동과제를 수행한 기업과 멘토들의

시상식에서는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이어지며 수상자는 물론 함께한 우리 서로를 격려했다.

부산대학교 LINC육성사업단 1차년도의 마무리이기도 했던 이날, 한 걸음씩 내실을 채워가는 LINC의 알찬 성과들이 감동을 만들었고, 더 크게 성장할 내일의 모습도 기대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학교와 기업, 연구원과 산업이 각각의 상황과 이해를 넘어 상생을 위해 '신나게'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더욱 강해졌다.

부산대학교 LINC육성사업단에서는 상생을 위해 대학과 기업의 신나는 만남이 이미 시작되었다.

필자소개

안중환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1989년 동경대학에서 정밀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를 시작으로 산학협력단장, 기계공학부 학부장, 기계기반 융합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GIFT)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